

문화특집

6월 항쟁 이후의 문학구도

자유와 당파의 양갈래

87년 '6월' 및 '그 이후'가 우리 문학에도 유의미한 구분법이 되는 것일까? 87년 6월 이후 과연 우리문학의 지평도에 가시적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난 것일까? 80년대 후반에 촉발된 소위 '민족문학논쟁'의 뒷배경에 87년 6월 항쟁이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범위한 민중투쟁이 군부권력으로부터 '부분적 양보'를 받아내고서도 결국 독재타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6월의 함성이 12월의 패배로 고스란히 귀결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은 현실의 변화에 예민한 수밖에 없는 문학계에도 심각한 반성적 물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전영에서 6월 항쟁의 의의와 그 역사적 한계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 그것은 6월 항쟁당시 민족민주진영이 파쇼의 양보에 의해 획득한 공간을 민중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보수야당의 활동공간으로 위임하고 말았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민족문학의 '계급성'을 분명히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이후 각계각층 민중운동의 급격한 성장은 6월의 성취를 능히 지쳐나갈 주체의 대두와 할만하다. 특히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아예 민족민주운동을 주도할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민중운동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판권이 뒀은 분

명하다. 80년대 민족문학논쟁의 '합리적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노동자계급의 당파성범주도 단순히 이론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노해, 백무산, 정화진, 방현석등 탁월한 노동문학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노동자 자신의 손에 의한 창작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단순히 직접창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선취가 구체적 작품생산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다.

다른 한편 87년 12월 선거이후 소위 6공화국의 개량화조치들은 자유주의문학을 재개한다. 88년 창간된 <문학사> 등인들은 87년 이후를 전향기라 규정하면서 소시민계급과 기층민중의 연합이 6·29를 기점으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본다. 그 붕괴는 소시민계급의 배반에서 비롯되었다. 표면적으로 그 배반은 파쇼군부독재의 형식적 민주주의에의 일정한 양보라는 수확을 가지고 소시민계급이 다시 체제 내로 수렴

되는 영역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들은 무한정한 자본의 힘에 포섭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문학의 자율성'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기자본주의사회의 문학은 노동자계급문학이나 민중문학이 아닌 '현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현실'인 문학의 자율성에나 기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서구모더니즘예술은 압도적으로 막강한 자본의 힘 앞에서 문학이라는 패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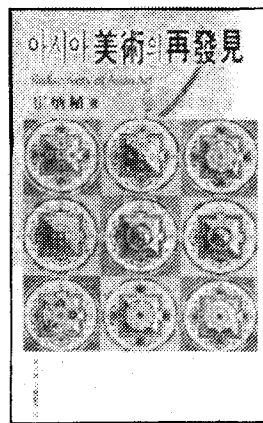
생산기반까지 마련해주어야 하는 형편에서는 민중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 강화될 때를 막지 민중계급을 체제 내로 개량화해낼 실질적 경제력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형에 대한 '무한한 승배'가 '필연적 패배'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이들이 자처하는 자본에 대한 '비판능력'도 사실 일종의 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더욱 확대일로에 있다. 최근에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명칭을 개조한다. 모더니즘문학의 자율성과 엘리트의식마저도 자체 비판하고 이제는 더욱 발전되고 탈산업화, 탈중심화된 기술문명에 걸맞은 대중적이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현실에 밀착된 '포

스트모던한 문학'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의 대중성은 전적으로 민중의 주체성과 개개인의 창조성을 존중하는 대중성이기보다 모더니즘의 고급문학을 일부 흡수한 새로운 상업문화이며 그 다양성이라는 것도 자본의 다국적화, 전지구화에 조응하는 한정된 다양화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문학 전공자들에게 의해 간헐적으로 소개되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문학의 중심부로 진입해들어오는 데에는 6공화국의 등장 이후 진행된 일련의 개량화조치가 한몫을 한 셈이다. 6공화국은 5공화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행문 형식의 동양미술책 '아시아 미술의 재발견' 발간



'남창색의 하늘과 허물라야의 실상에서 산소부족에 허덕이면서 만다라의 비경에 감격했던 일, 끝없는 데칸고원에서 신들의 영혼에 취하여 혼미했던 일, 아마도 꿈이었으리 생각했던 실크로드의 추억. 아/ 이 모두가 탐미의 고행이였으리'라는 작가의 회고와 담긴 기행문형식의 '아시아미술의 재발견'이 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연과 영혼으로의 예술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아시아미술의 재발견'은 본교출신 최병식씨의 저서로서 현재 한국미술이나 동양미술에 관한 교재한권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발간되었으므로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필자가 직접 8회에 걸쳐 중국·티베트·인도, 기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발로 쓴 이 글은 풍부한 사진도 함께 실려있어서 동양권 미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문선생 김9천원)

'문예교실' '목요 시장작 교실' 오는 5일까지 모집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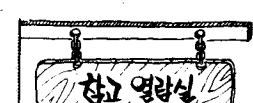
'한국 시문학 화환'은 3개월(13주)과정의 '문예교실'과 '목요 시장작 교실' 회원을 오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예교실'은 글쓰기에 관심있는 주부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시, 수필만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2시에 열리는 시반 문예교실은 박경석(시인, 소설가), 홍윤기(시인), 신세훈(시인), 노향림(시인)이 지도하며, 수필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열리며 지도는 권일송(시인), 마광수(시인), 노수민(소설가), 유희남(수필가)이 맡는다.

'목요시장작 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도시인은 윤강로, 김용국, 김영송시인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764-6352)

누벨바그



1956년 프랑스의 감독 로제 바담은 '그리고 나는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영화는 이후 누벨바그(Nouvelle Vague)라고 통칭되는 새로운 영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누벨바그라는 용어는 '엑스프레스'지의 기자 프랑수아즈 지드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전위 영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 새로운 영화운동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60년대를 풍미했으며 헐리우드의 오락영화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예술적인 영화들이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사백번의 구타'(1959)를 만든 프랑스파 누르, '히로시마 내 사랑'(1959)의 '알랭 레네', '네 멋대로 해라'(1960)의 장 루이 고아르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드 사브르, 루이말통이 여기에

양영철

(영화조감독)

실존철학 반영한 전위영화

영화감독 '까미에 드 시네마'나 '포지티브'의 평론가였던 이들은 당시에 20-30년대의 젊은 나이였으며 직접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무명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소규모 자본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흥행성이나 예술성의 모든 면에서 성공했다. 따라서 이 영화들은 메이저 영화사들의 프로덕션 시스템을 탈피하여 감독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작가주의 영화가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누벨바그 영화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그들은 세르르나 까미의 실존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고아르의 영화 '그것이 내 인생'에서의 여자주인공의 죽음은 까미의 '이방인'에서 처럼 표면적인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서술구조를 파괴하고 내러티브 상의 느슨함과 개방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영화속의 시간과 공간은 감독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 되었다고 관객들을 소외시켜 영화속에 몰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감상하도록 만들었다.

새로 창립한 국악모임 '해오름'

문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예술'의 이름아래 전통에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서양관현악단을 도용하고 전통을 보존·답습하는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해오름'은 단순한 전통의 보존·답습에서 벗어나 이 시대 민중의 정서에 맞는 '민중음악의 상'

시켜 전체기획에 맞게끔 공연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이번달은 국악분석작업, 내달 7월에는 문화운동계의 음악창작단체와 '뮤직캠프'를 통한 창작음악분석을, 9월엔 워크숍 공연을, 11월에는 제1회 정기공연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국악이라는



국악모임 '해오름'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민정씨. (사진: 김민정씨 제공)

노동자 당파성과 문예전문성 갖춰 전통의 답습 벗어난 창작활동 추구

을 제시하고자 연구·창작활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13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오름'은 기획부, 연구부, 창작부, 연주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으로는 기획부의 역량을 강화

새로운 매체를 통한 실험작업에 들어간 그들에게 당장의 성과와 요구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해오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선모상씨는 "기준에 민족·민중문화로서의 국악에 대한 연구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구자로서 기존문화단체에게 고민의 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오름'의 창단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조

급해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국악운동에 토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이니까요"라며 다소 다부진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과학 세미나 등을 통하여 차곡차곡 '해오름'의 창단을 준비해온 그들은 진정 이 땅의 민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국악창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주기자)

“아버지가 왜 기쁜지 아니?”



▲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을 찾은 홍철군. ▼ 대우중공업 신원터과정 (소재사업본부 생산1과)의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신원철군.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찌나 궁금하구나. 아마 내가 대학인으로 늘상 다하고 보던 것들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거다. 50년대 후반만 해도 기껏해야 떡방이나 농기구 소재생산이 고작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나 자동차 엔진 소재를 만들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지. 이곳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사반세기를 이어왔듯이 아버지의 삶도 이 소재생산분야 발전과 함께 해 왔단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밤을 새우며 연구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남들로부터 베테랑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더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 그게 바로 대우의 정신이자, 내 삶의 철학이지. 네가 시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단다. 지난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생으로 오늘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부디 너도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의 꿈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한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